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5:1-13

【인도자를 위한 예화】

장 프랑수아 밀레(1814~1875년)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 세 명의 여인이 이삭 줍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세 여인 뒤로 수확한 곡식을 쌓은 풍성한 단과 수레에 가득 실린 곡식이 보입니다. 얼핏 목가적인 농촌 풍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살았던 밀레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담아낸 그림입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그림 속 장면을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농민의 모습으로 여겨 밀레를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밀레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 주시는 분임을 묘사함으로써 세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임을 표현하려 했던 것입니다. 밀레의 다른 작품인 <만종>에는 가난한 농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얻은 수확물이 노동의 결과가 아닌 하늘에서 내린 비와 따뜻한 햇살, 적당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난한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시편 65:1-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65편은 칠칠절에 부를 노래로 지어진 시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3대 절기(유월절, 장막절, 칠칠절)나 안식일 예배에서 감사시를 지어 불렀는데, 이때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 없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노래했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리고 태초부터 종말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특별히 65편은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특별 은총과 더불어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일반 은총을 모두 노래하는 전형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는 두 가지 구속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하나님은 종말의 때까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기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이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고 일반 은총을 넘어 특별 은총까지 나아가길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구원에 이른 자들은 거저 받은 특별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를 찬양하며 온 열방에 전하고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나요?(4절)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죄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며(3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택하시고'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선택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음을 뜻합니다. '가까이 오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거나 가까이 다가옴'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귀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에서 ‘주의 뜰’은 성소의 앞마당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사장과 일반 백성이 제사 후 제물을 함께 나눠 먹던 장소를 말합니다. ‘살게 하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거주한다는 공간적 의미를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에서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주의 뜰에 살게 하신’이라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을 설명합니다.

적용과 나눔 I

내가 하나님께 가장 받길 원하는 복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다윗은 구약시대 인물이었음에도 구원에 대한 명확한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개인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들이 복 있는 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강한 권력을 누릴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영구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가졌다가도 잃고, 손에 쥐었다가도 놓치는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 있는 동안 세상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입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 은혜로 택함 받아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이어질 때 주어집니다. 성도의 삶이 세상 안에 펼쳐지기에 세상의 복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이 더 유익한지 따져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을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이 인간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9절)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65편 후반부는 농사를 예로 들며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 줍니다. 당시 주산업이었던 농업에서 좋은 수확을 얻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는 열방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각합니다. ‘땅을 돌보시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뜻합니다.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넘치게 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에서 ‘하나님의 강’은 특정한 지역의 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147:8)라는 말씀처럼 비를 내리기 위해 하늘에 물을 모아 둔 곳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와 일하심의 결과로 곡식을 얻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II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이신론(Deism)은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철학 이론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면서도 창조 이후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고 세상은 자연법칙이나 물리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는 종교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성적 사유가 가능한 진리 안에 기독교 신앙을 한정시킨 합리주의적 종교관으로 반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을 절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영원히 창조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한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땅을 돌보고 물을 주시기에 최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땀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봄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